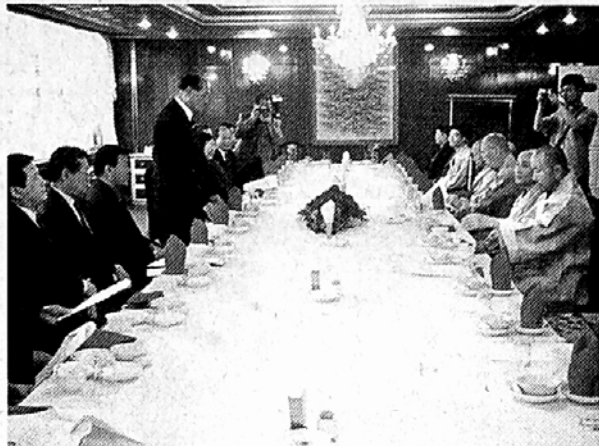


“신도운동 활성화에 앞장서자”

정대 총무원장·신도연합단체장 첫 간담회



정대 총무원장 정대선(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조계종 종단간부들과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신도연합단체장들의 간담회 모습.

“종단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승속이 하나 돼 신도운동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선(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일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조계종종목 신도연합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불교가 잘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올해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건립 등의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도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 청년층 중심 포교활동 지원” “주지임명대 포교성과 반영시키길”

뜻한 총무원 부장급 간부들과 14개 신도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도들이 종단현안을 공유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공유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대선(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이날 “신도단체가 살

아야 불교가 잘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올해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건립 등의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도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신도단체들의 운동방

식들이 실패하고 다른 종교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종단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대다수의 스님들이 시대의 변화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급진적 개혁방식이나 종단에 손해를 입히는 문제해결 방식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단체장들의 인사발령, 총무원장 브리핑, 신도단체 종단건의 사항 등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소중한 간담회에서 종단현안에 대한 총·제가 대종교간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져 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호 포교사단 부단장은 “사찰 주지스님들의 포교성과를 주지 임명시에 잠정포교 해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경 기자 jkjm@buddhapia.com

어려움 겪는 군법당중창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타종교인 1억상당 토목공사 지원불구

모연·종단·지역사찰 후원 여의찮아

육군 맹호부대 호국연호사가 천주교 신자인 부대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범당 중창불사에 나섰으나 불사금 모금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국연호사는 지난 3월 108평 규모의 범당중창을 위해 총 3억 9천여 만원이 소요되는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77년 35평 규모로 건립된 현 범당이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비좁아 법회 진행 등 신행공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불사비 조달은 부대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5천여만원을 조성하고 불교계 종단과 인근 지역사회사의 모연으로 정기 간담회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kjm@buddhapia.com

후원하고 있다. 인근 남양주 불사사 주지 일민스님도 불사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호국연호사 정운성 주지법사와 맹호부대 간부들은 매일 아침 108배 기도 등 정진에 들어가는 등 중창불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불교계 종단과 지역 사찰, 불자들의 후원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호국연호사 정운성 주지법사는 “타종교인 부대장과 불사사 등의 적극적인 후원에 불구하고 불사금 모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 군법당자들이 여법한 여건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후원계좌 농협 227050-51-182458 (예금주 7021부대) 박봉영 기자

‘북한산도로’ 현장 다시 긴장감

의정부지법 “농성장 13일까지 철거...불응땐 강제집행”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농성장 위치의 의정부 송추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집합관을 회동사로 보내, 13일까지 의정부 송추 농성장 법당을 철거하라는 법원 행정명령을 전달하고 불응시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동사 비구니 스님들과

불교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회원 등은 송추에 모여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송추현장에 있는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강제 집행이 있을 경우 스님이 다치고 법당이 훼손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

에 사찰수행환경 수호 및 자연보전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봉선사, 수덕사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9일 의정부 송추 현장을 방문 격려했다. 강유신 기자

군법당·교도소·양로원 등 자비의 선물 보내기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과 조계사(주지 지홍)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선부대 군법당과 교도소, 소년원, 양로원 등 소외계층에 자비의 선물을 전달한다.

포교사단은 이날 20일부터 2만개의 자비의 선물을 제작, 내달 1일부터 포교사단 군포교팀과 교도소팀 등의 포교사들이 직접 자비의 선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비의 선물 꾸러미에는 빵, 과자, 음료 등 먹거리와 포교용 소책자, 합장주, 봉축 카린터 등 포교용 소품이 담겨진다.

6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제작비는 조계사와 봉축위원회, 포교사 모연, 거리 모금, 불자 후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23-25-0012-628 (예금주 포교사단)

박봉영 기자

인천 지하철에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함에 따라 지하철 포교 전국시대가 열리게 됐다.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3월 27일자로 인천지하철공사로부터 포교게시판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지하철이 운행

지하철 포교 전국시대 ‘활짝’

풍경소리, 인천 지하철역 게시판 설치 3년만에 서울·수도권·부산 등에 자비말씀

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모든 구간에서 자비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풍경소리는 승인 조건에 따라 인천지하철 소속 22개역 중 10개역에 대해 1일 설치를 마쳤으며, 12개 역에 대해서는 10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설치 승인을 받고도 주변 사찰의 협찬이 없어 설치자 자연

충북대 불교학생회 불상 훼손 낙서·십자가 목걸이 그려져

충북대 불교학생회(회장 박승용)에서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 오전 동아리방을 찾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동아리방에 봉안된 불상에 낙서와 함께 매직으로

고 있는 일부 역에 대한 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풍경소리는 99년 9월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460개 역에 자비의 말씀을 게시한 이래, 3년만에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철도청 소속 모든 역사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국민 절반 이상

매장보다 화장 선호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사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가 전국 성인남녀 1천1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장묘문화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장례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52.3%(621명)를 차지, 매장 선호자 32.9%(391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납골묘 조성과 관련, 절대 다수인 78.1%가 찬성해 9.7%의 반대 입장을 압도했다.

이와 관련 생명나눔실천회 장혁기 회장은 “불교계에서도 화장과 납골시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화장을 위한 장묘문화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장례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쓰레기 Zero 1080운동

1080명 모아 1천일간 진행

불교환경교육원(원장 유수)이 1천 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제로 1080운동’에 나선다.

불교환경교육원은 1일 서울·대구·부산 등 6대 도시에서 쓰레기 배출현황 조사 및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교육원은 △일반인, 가족 대상의 환경교육 △투명망·방수망 사용 및 쓰레기 발생량조사 등 시민실천운동 △포스터제작 배포, 방수망 제작 등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범국민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연중 전개할 방침이다. 쓰레기제

로 1080운동은 회비를 1080원씩 내는 회원을 1080명 모아 앞으로 1천일간 걸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쓰레기제로 1080실천단’이 3월 17일 구성됐다. 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사무국장은 “1회용품과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교육원은 5일 서울 방배동에 생태환경교육장인 ‘땅살림 생태교육장’을 개원했다. 땅살림 생태교육장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 연구 △습지생태계 조성 및 복원방법 연구 등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02587-8997 강유신 기자

고속철 금정산관통 “불가”

대책위, 건설본부장 “노선변경 곤란”에 단호

고속철 관통 반대 상임집행위 도관스님, 원타스님, 내원사 교무 도경스님 등은 3월29일 법어사를 방문한 고속철공단 강재열 건설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고속철의 금정산 통과는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심각한 수행환경 파괴와 금정산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금정산 관통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재열 건설본부장은 “건설과 환경은 상충되는 면이 많아 어느 한쪽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현재로서는 노선변경은 거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금정산 고속철 통과 저지를 위한 범어사 대책위원회는 3월30일 방송홍보단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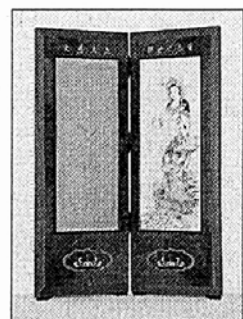
또한 13일에는 시민들과 불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범불교도교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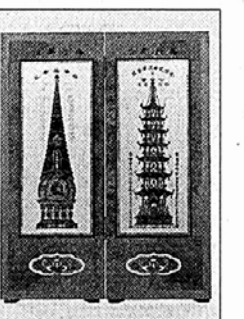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관음병풍



불탑다라니병풍



특징

- 1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 2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동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용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 3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4 커다로그를 보실때마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 직접보여 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윽함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6 현재 큰스님에게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폭씩 놔두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푼당)

<신용카드합부구입가능>

*카드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는 사천왕 4분을 모신”

사천왕(四天王) 병풍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1 사천왕이 모셔진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사람이 날이 번성한다 하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사찰내에 모셨으면 하고 원하시던 사천왕이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영구적으로 편리하게 모실수 있도록,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하여 성품(聖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특이 포교당이나 작은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모시기에 적절한 규격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천왕 네분을 모셔 보십시오. 인력을 세우신 스님께서는 큰 도율을 주실 것이며, 스님의 신도들을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심(佛心)을 더욱 깊게 넣어주시어 도량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입니다.
- 현재 본 사천왕 병풍을 보신 신도들이 자신의 공덕을 짓기위해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사천왕 병풍을 보시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에 오고 있습니다.

- 1 법당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 2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수 있도록 배본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시어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용걸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 3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에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카드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자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뵈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